



중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간~행렬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당 학교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방역당국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묘역 무릎 꿇은 국민의힘 한전공대법·아특법 처리 '외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호남과 동행 한다더니 '헛구호'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서 '호남 동행'이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중권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묘역 앞에 무릎을 꿇고, 호남에 현역 국회의원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경재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면서 "과거에도 4~5년 운영하다 사라진 대학과 대학원도 많았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에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전남대와 동신대 관련 에너지 학과가 있다. 이런 점도 참조를 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환을 3·4호기에 대한 명확한 결정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에너지 산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젊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양성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한전

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강훈식 의원에 "지방의 새로운 살길을 만드는 계기다. 다른 공기업들도 평생교육에 걸맞게 (각 지역에)이런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도 이날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의 취지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확보도 매우 어렵게 되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직권 남용' 수사 의뢰

"직무배제·징계 부당하다"

전국 평검사들 잇단 성명 발표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 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검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

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나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첫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

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리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검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검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어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을 향해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대구지검·대전지검·천안지검·수원지검·울산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검·청주시검·춘천지검 등 평검사들도 이날 집단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는 학교, 전남은 혁신도시에서...코로나19 확산세

학교내 감염까지 발생

수능 6일 앞두고 방역 '비상'

광주에서 코로나 19 첫 학교내 감염이 일어나면서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방역 및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에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5일 14명, 26일 오후 6시 현재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5일 확진자는 서구 상촌동 상일중 5명(학생 3, 가족 2), 호맥 진원점 관련 3명, 전남대병원 관련 3

명, 전남·전북 확진자 접촉자 3명이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 전남 대병원 관련 1명,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49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25일 9명, 26일 오후 6시 현재 10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393명이 됐다. 25일 확진자는 나주 6명, 순천 2명, 장성 1명이

다. 26일 오후 6시 현재 확진자는 나주 5명, 순천 3명, 여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 392번으로 분류된 여수 확진자를 제외한 18명은 감염경로가 모두 확인됐다. 나주 혁신도시 40대 식자재납품 자영업자(전남 367번·24일 확진) 관련 확진자는 이날 하루동안 5명 늘어 총 14명이 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공연 운영 NAVER 명품 온라인대중공연
문화재단 광주일보사 매일신문사

제6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 얼굴·작품·심사평 ▶14·15면



별이 된 축구의 신
"굿바이! 마라도나"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O.1%
NEW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